

---

# 정책참고자료

---

2018-19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실)



# 목 차



1	<b>행정안전부</b>	
	<b>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b>	4
	- 행안부,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	
2	<b>국민권익위원회</b>	
	<b>'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b>	9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응답자의 87.9%가 찬성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열어'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	
3	<b>중소벤처기업부</b>	
	<b>전국 300여명의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이 뭉친다.</b>	16
	- "전국 청년상인 네트워크 출범 및 통합 워크숍" 개최 -	
4	<b>교육부</b>	
	<b>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지자체와 동행한다</b>	20
	- 제2차 포럼, 지자체와 함께 학생들의 꿈을 키워 나아가다-	
5	<b>과학기술정보통신부</b>	
	<b>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관(科學館)을 생각 한다</b>	24
	- 11.8(목)~11.9.(금) 제8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개최 -	
6	<b>문화체육관광부</b>	
	<b>문화누리카드와 함께 진로체험의 장을 열다</b>	27
	- 문체부·교육부,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 -	
7	<b>농림축산식품부</b>	
	<b>"2019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개시"</b>	32
	- 신청기간 : 2018. 11. 5. ~ 12. 4.(30일간) -	
8	<b>환경부</b>	

	<b>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27년까지 25종 복원</b>	————— 37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27년까지 25종 복원 -	
<b>9</b>	<b>고용노동부</b>	
	<b>새로운 사회적기업 73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089개로 늘어</b>	————— 41
	- '18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	
<b>10</b>	<b>여성가족부</b>	
	<b>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b>	————— 47
	-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 -	
<b>11</b>	<b>국토교통부</b>	
	<b>2일부터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위한 찾길사고 예방 캠페인</b>	————— 49
	- 11~12월 동물 찾길사고 집중예보기간...안전운전·운전자 대응요령 홍보 강화 -	
<b>12</b>	<b>해양수산부</b>	
	<b>해수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확 줄인다.</b>	————— 53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1

## 행정안전부

### 30년 만에 주민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 행안부, 지방자치의 날 맞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 한다고 발표했다.
- '88년 전부 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 제도개선만 해온 지방자치법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아래 올해 9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 한 바 있으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종합계획의 비전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실질적 조치가 시작된다고도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바뀌는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종래 중앙-지방간 ‘단체자치’

- 중심)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함으로써 강화하고
-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며,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는 주민소환·주민투표의 청구요건 등도 완화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더불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주민감사 전치주의)의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여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정치행위 성격을 갖는 주민투표·소환은 19세 유지)
  - 또한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현행 ‘단체장중심형’)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 금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도 근거만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와 여건 성숙도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기관구성 유형 및 필요 사항은 추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할 예정이다.

## ②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자기책임성 등 사무배분의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 의무를 부여한다.
- 법령 제·개정 시 자치권 침해 여부 등을 심사하는 ‘자치분권 영향평가’도 도입한다.
- 또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필요시 조례를 통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을 강화한다.

- 실·국설치 자율성 확대 등 기타 자치조직권 과제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추진해 나가며 책임성 확보 방안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 ③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 및 방법 등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 규정을 신설하고, 향후 정보공개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주민의 접근성을 보장한다.

※ 지방의회에도 의정활동 정보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마련

○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현행 재량) 하며,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심사 전 의견수렴)를 신설한다.

○ 또한 위법한 사무처리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현행) 시도가 시·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국가 관여 불가

#### ④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 또한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의 제도화를 위해 ‘(가칭)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별도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 ※ 대통령·의장, 국무총리·시도지사·협회장·공동부위원장, 시도지사, 지방대협의회장, 기재·행안장관 등
-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 한다.
  - ※ 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원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 겸직,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에서 간선, 규약으로 자원조달 등
- 오늘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11월 중에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며, 이를 통해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 주민의 삶이 바뀌고, 지역의 혁신과 창의성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4.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 자치발전협력회의 설치
-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 신설
- 단체장 인수위원회 제도화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 행정협의회 설립절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마련
- 인구100만 대도시 특례 부여

**3. 자치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 자치단체 정보공개 일반규정 신설
-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종합적 공개
- 국정통합성 제고 위한 근거규정 마련
- 기초단체 자치사무 수행 책임성 확보
-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2. 실질적 자치권 확대**

- 사무배분 원칙 확립 및 준수 의무 부과
-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 도입
-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1.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 주민자치 원리 강화
- 주민의 참여권 확대
-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 주민조례발안 요건 세분화 및 완화
- 주민감사 청구인수 상한기준 하향
- 주민감사 청구가능기간 연장(3년)
- 단순청구권 기준연령 완화(18세)
-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명확화
- 주민소환 청구요건 차등적 완화
- 주민투표·주민소환 개표요건 폐지, 확정요건 도입
-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
- 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 모든 차량으로 확대 추진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응답자의 87.9%가 찬성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 열어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

- 앞으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되고 자동차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 여부와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등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차량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대비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17개 특별·광역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에 권고했다.

그동안 소방청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로부터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위해 국민참여 소통 기반인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에서 올해 7월 2일부터 15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확대에 대해 87.9%가 찬성하고 ▲소화기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는 51.5%, ▲소화기 설치 의무 규정조차 모르는 경우는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만약 차량용 소화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차량의 화재발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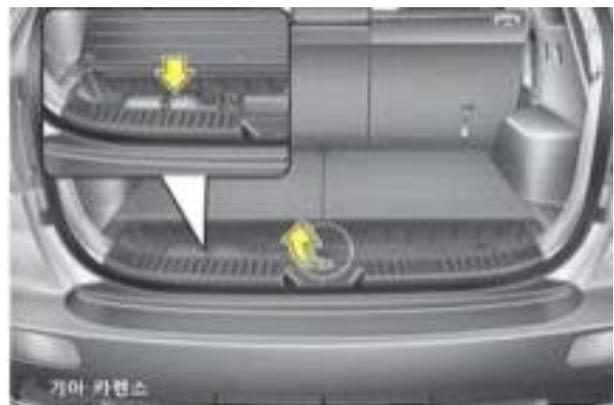
목격하면 적극 도와 줄 의사가 있다고 말한 응답자도 87.9%에 달했다.

-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간 차량 화재는 3만 784건으로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하고 이 중 5인승 차량이 47.1%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이처럼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못해 대부분 전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인승 미만의 차량은 소화기 설치 위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소화기 설치위치를 규정한 11인승 이상 차량의 경우도 제각각이어서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 \* **[유형1]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설치 위치 미규정)** : 7인승 이상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 또는 측면에 소화기가 설치돼 화재발생 시 신속한 사용 곤란



- \* **[유형2] 승차정원 36인 이상 승합자동차(2개 이상 설치)** : 시내버스 및 고속·관광버스 등은 소화기가 운전석 바로 뒤 승객좌석 밑, 차량 맨 뒷좌석 넘어 화물칸에 설치돼 즉시 사용 곤란



(출처 : KBS뉴스 보도, 2017.9.12.)

또 자동차 신규·정기검사 시 검사원이 소화기 설치여부를 확인해 소화기 미설치 시 운전자에게 시정권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강제력이 없어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돼 왔다.

특히,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한 소방안전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소화기 설치의무 이행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차량검사소는 '소화기 미설치' 확인만 하고 운전자에게 미고지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2018. 8.)
- √ 지자체별 운수업체 등록수 등 여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전수조사가 곤란할 수 있으므로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설치를 강제할 필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의견청취, 2018. 8.)

차량 운전자 상당수는 자동차 소화기 작동법을 알지 못하거나 소화기 장착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사업용 운수종사자에 대한 차량화재 대비 교육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 √ 자동차 소화기 관련 설문응답자(206명) 중 ① 소유차량의 소화기 설치여부 모름 65.6 % ② 소화기 설치의무 사실 모름 65.0% 수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2018. 7.)
- √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소화기 설치위치 등에 대한 안내가 없을 뿐 아니라 자동차 검사 시 소화기 관련 고지를 받은 적 없음”  
(7인승 차량소유자, 2018. 8.)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와 소방청은 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 ① 현행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의 ‘소화기 설치의무’ 규정을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승용자동차로 확대하고 소방청 형식승인을 받은 다양한 ‘자동차용 소화기’ 장착을 허용하도록 했다.
- ②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뺄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 ③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시 소화기 설치여부와 상태점검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정권고 대상 차량 정보를 소방청(지방자치단체 소방재난본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시정권고사항 미이행 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④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의 교통안전교육과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여객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과정에 ‘차량화재 예방 및 대처 방법’ 과목을 신설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자동차 화재사고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생활 속의 안전 위해 요소들을 개선하는 「365 안전 불감증 퇴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되면 엔진룸 화재뿐만 아니라 담뱃재 등에 의한 차량내부 화재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다른 차량 화재발생 시 주변의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 **자동차등록대수 및 화재발생 현황**

- '17년 12월 말,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2,528,295대로 인구 2.3명당 자동차 1대꼴

**<연도별 자동차등록대수현황>**



- 최근 7년간('12.1월~'18.7월) 차량화재는 30,784건으로 연평균 4,600여건 발생, 인명피해는 '16년 143명, '17년 16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

**<연도별 자동차 화재발생 현황>**

구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8.7월
화재(건)	<u>30,784</u>	5,078	4,828	4,462	4,605	4,564	4,550	2,697
인명피해 (사망·부상)	<u>955</u>	136	130	129	150	143	168	99

□ 자동차 화재현장 도착시간대별 화재건수

- 최근 7년간('12.1월~'18.7월) 119 신고접수 후 5분 이내 골든타임을 넘어 차량화재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약 46%(14,144건)

<최근 7년간 화재현장 도착시간대별 화재건수(소방청)>

연도	계	5분 이내	10분 이내	10분 초과
2012	5,078	2,901	1,317	860
2013	4,828	2,483	1,404	941
2014	4,462	2,491	1,146	825
2015	4,605	2,590	1,211	804
2016	4,564	2,408	1,356	800
2017	4,550	2,382	1,350	818
2018.1~7월	2,697	1,385	811	501
총계	30,784	16,640	<b>8,595</b>	<b>5,549</b>

\* 총 30,784건 중 5인승 승용차 비중이 47.1%

## 전국 300여명의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이 뭉친다.

- “전국 청년상인 네트워크 출범 및 통합 워크숍” 개최 -

- 중소기업부(홍종학 장관)는 11.5(월)~6(화) 이틀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 청년상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청년상인 전국 네트워크 출범 및 통합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부가 전통시장의 미래를 대비하여 ‘15년부터 추진해온 청년상인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창업하여 활동중인 청년상인 300여명이 이번에 처음 모인다.
- 금번 행사는 청년들에게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통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청년상인”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청년상인들을 격려하고 청년상인으로서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마련하였다.
- 전국 각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했던 청년들이 처음으로 만나 서로간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고 향후 지속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류·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하게 된다.
- 또한, 신포국제시장 청년몰(눈꽃마을), 대전 중앙시장 청년몰(청년구단) 지도로 청년상인들에게 친숙한 백종원 대표가 재능기부로 특별출연하여 토크콘서트(“기본으로 단련된 장사의 프로그 되라”)를 진행할 예정이다.
- 성공한 청년사업가 김윤규 대표(청년장사꾼), 배성기 대표(국가대표 과일촌) 등은 “스카쇼(스타트업의 날카로운 이야기 쇼)”를 통해 성공한 청년상인 선배로서 장사에 대한 고민과 해법을 제시한다.

- 중소벤처기업부 이호현 상생협력정책관은 “비록, 실패사례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창업에 성공해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는 청년상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며
  - “실제로 이들이 전통시장을 변화시키고 침체된 상권을 활력을 불어넣어 원도심 등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전통시장을 외면했던 젊은 고객들을 다시 시장으로 불러오고 있다” 고 전했다.
  
-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청년상인들이 상호 협력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마련하고, 향후 청년상인 권익보호와 상생발전에 필요한 청년상인 전국 조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권역별 워크숍 및 전국 워크숍 정례화, 상호 방문 및 벤치마킹, 우수시장 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 공동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행사 현장사진은 11.5(월) 15:00까지 배포 예정

## 참고

## 청년상인 전국 네트워크 통합 워크숍 계획(案)

### □ 행사 개요

- 행사명 : 청년상인 전국 네트워크 통합 워크숍
- 일시 : '18. 11. 05(월) ~ 06(화), 1박 2일
- 장소 : KT대전인재개발원 (대전 서구 괴정동 소재)
- 참여대상 : 전통시장내 청년상인 350여명 \* 전통시장내 청년상인 모두 가능
- 행사내용 : 백종원 대표와 함께하는 토크쇼 및 다양한 네트워킹 행사
  - 토크쇼, 스카쇼, 팀빌딩, 만찬 및 네트워킹, 권역별 팀워크 행사

### □ 주요행사 내용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비고
1일차	유명인 초청행사	(토크쇼) 백종원 대표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스카쇼) 스타트업의 날카로운 이야기 쇼	메인행사
	네트워킹 행사	(아이스브레이킹) 행사장 분위기 UP 프로그램 (팀빌딩) 권역별/시장별 청년상인 팀워크 행사	네트워킹 행사
	만찬 및 화합한마당	(만찬) 청년상인과 함께하는 즐거운 만찬 (레크리에이션) 청년상인 화합 한마당 (피날레 공연) 청년상인 화합의 축하공연	
2일차	권역별 자체행사	- 권역별 네트워킹 활성화 프로그램 * 권역별 네트워크 대표(임원진) 진행	자체행사

### □ 주요 게스트(강연자) 현황

백종원(53세)	김윤규(31세)	배성기(43세)
		
- 더본코리아 대표 - 요리연구가 * SBS 골목식당 솔루션 지원	- 청년장사꾼 대표 - 용산 열정도 기획 * 창업 5년 만에 전국 17개 매장 매출 30억 달성	- 국가대표 과일촌 대표 - 트럭장사 사관학교 운영 * 중고트럭 한 대로 매출 100억 달성

## □ 전체 행사 일정

	프로그램	시간	세부내용	비고	
1 일 차	입소 및 등록 (11:00~11:30)	-	○ 입소등록 - 권역별 버스이동 및 입소등록		
	오리엔테이션 (11:30~11:50)	20'	○ 오리엔테이션 - 전체 행사 일정 안내, 연수원 이용 안내		
	중 식 (11:50~12:50)	60'	○ 중식 - 일반식 제공(장소 : 구내식당)		
	아이스브레이킹 (12:50~13:30)	40'	○ 아이스브레이킹(30분) _전문가 진행 - 어색한 분위기 깨기 ○ 토크콘서트 준비(10분)		
	토크 콘서트 (13:30~15:00)	90'	○ 토크콘서트_전문사회자(아나운서) 진행 - 주제 : 기본으로 단련된 장사의 프로가 되라(가제) * 참여 : VIP, 백종원 대표(더본코리아, 요리연구가), 노지현 대표(광주 1913송정역시장 느린먹거리), 이대겸 대표(대구 두류종합시장 두류돼표국밥) ○ 기념 촬영(내·외빈 및 단체)		
	스팟 게임 (15:00~16:00)	60'	○ 팀빌딩(팀워크) 게임_전문가 진행 - 권역별 시장별 팀워크 게임		
	스카쇼 (16:00~17:00)	60'	○ 스카쇼(스타트업의 날카로운 이야기쇼) - 초청게스트 : 성공한 청년 창업가 2인 * 김윤규 대표(청년장사꾼) 배성기 대표(국가대표 과일촌)		
	체크인 (17:00~18:00)	60'	○ 개별 숙소 배정 및 개인정비(환복) - 체크인 가능시간 : 17시부 이후		
	만찬 (18:00~19:00)	60'	○ 만찬 - 뷔페 제공 (장소 : 행사장)		
	네트워킹 (19:00~21:00)	120'	○ 네트워킹 및 레크리에이션 - 전체가 함께 하는 화합 한마당(80분) - 피날레 공연(40분)		
	2 일 차	조식 및 체크아웃 (07:30~09:00)	60'	○ 조식 및 체크아웃 - 일반식 제공(장소 : 구내식당)	
		권역별 자체 행사 (09:00~10:00)	60'	○ 권역별 자체 행사 - 권역별 네트워크 임원 주관 자체 행사	
귀 가 (10:00 ~ )		-	○ 귀가 - 권역별 버스 이동		

##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지자체와 동행한다

- 제2차 포럼, 지자체와 함께 학생들의 꿈을 키워 나아가다-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11월 8일(목) 15시부터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는 소통과 기회의 장을 열기 위해 '제2회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포럼'을 개최하였다.
  -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는 학교의 경계를 넘어 지역과 함께 학생의 꿈을 키우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 이번 포럼에서는 「지자체 중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구체적 사례와 적용 방안」에 대해 네 명\*의 발제자가 각자의 주제로 발표하였고,
    - \* 양병찬(공주대), 이은경(광명시 청소년재단), 김태욱(홍성군청 평생교육팀), 김지선(노원구청 이동청소년과)
    - 이어서 지자체, 교육계, 학계, 학부모 등 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가 패널\*과 참가자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 지자체 최순옥(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장봉수(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
      - 교육계 유영주(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담당 장학사) 학계 조윤정(경기도 교육연구원 학교교육연구팀장) 학부모 정혜진(인천시 미추홀구 마을공동체 파랑새 대표)
  - 네 명의 대표 발제자의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기초 발제자로 나선 양병찬 교수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였고,

**< 정책 제안 >**

(지자체의 역할) 진로교육 마을 공동체 구축을 위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상호 협력 및 파트너십 제고를 위한 공감대 확산

(정책 방향) 마을 단위의 진로교육을 위한 학교-마을 협력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및 장치 마련

- 이은경 실장은 광명시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사례와 진로교육의 연계성을 찾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시하였고,

**< 정책 제안 >**

‘삶이 터전’이 곧 배움터라는 인식으로 지역의 과제를 스스로 발굴·해결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

- 김태욱 팀장은 홍성형 마을학교 운영 사례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마을학교 운영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고,

**< 정책 제안 >**

진로교육에 기반한 마을공동체 구성으로 민간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자발적 마을교육이 필요

- 김지선 과장은 ‘마을 전체가 직업 체험처로 되는 꿈’이란 주제로 천천일상(천개의 일, 천개의 상상) 추진단 운영에 대해 소개하며,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책 제안 >**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추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 접근 방식 필요  
(지역사회)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와 예산 마련  
(교육청) 4차 산업혁명 대비 인재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추진협의회 구성  
(학계) 청소년 맞춤형 진로체험 모델 개발  
(학생과 학부모) 미래 사회에 적합한 맞춤형 진로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

- 이어 지자체, 교육계, 학계, 학부모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패널 토의·토론에서는,

- 최순옥 담당관은 청소년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가

지원해야 하고 마을공동체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 장봉수 과장은 '학교와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삶과 연결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휴공간을 개방하여 마을교육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 유영주 장학사는 민·관 주도형 마을공동체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참여 주체 간의 역할 정립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 조윤정 팀장은 '지역사회 학습장' 구축을 통해 미래인재의 진로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정혜진 대표는 학부모 입장에서 학생 맞춤형 활동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민·관·학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이렇게 각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참가자들과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구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교육부 최은옥 평생미래교육국장은 “이번 포럼은 지역사회 내 우리 아이들의 진로교육을 위해 구축한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라면서,  
“발표된 여러 내용들과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들의 진로설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진로교육 마을공동체를 실현해가겠다.”라고 밝혔다.

□ 추진 목적

- 진로교육을 통해 구축한 마을교육공동체와 지자체, 외부기관의 협력이 미래 교육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도록 소통과 기회의 장 마련
-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을 살펴본 후, 진로체험의 새로운 콘텐츠 모색과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추진 개요

- (주제) 지자체 중심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구체적 사례와 적용 방안
- (일시/장소) 11.8.(목) 15:00~17:30/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 (참석대상) 광역·기초 지자체 진로교육 담당자, 시·도교육청 장학관(사), 센터 전담 주무관, 교원, 마을교육공동체 관련자(마을교육활동가, 마을교사 등), 학부모, 진로체험지원센터 관계자 등 약 200명
- (주최/주관) 교육부/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세부일정(안)

시간		내용
15:00~15:0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회식 국민의례</li> <li>▪ 주요 참석자 소개</li> </ul>
15:05~15: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말씀</li> <li>-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li> </ul>
15:10~16:30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조 발표 :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 (양병찬, 공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li> <li>▪ 주제발표1 : 지자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우수사례1 (이은경,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재단 경영지원실장)</li> <li>▪ 주제발표2 : 지자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의 우수사례2 (김태욱, 충남도 홍성군 평생교육팀장)</li> <li>▪ 주제발표3 : 지자체 진로교육 마을공동체 우수사례3 (김지선, 서울시 노원구 아동청소년과장)</li> </ul>
16:30~16:4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식 시간</li> </ul>
16:40~17:2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패널 및 종합 토론</li> <li>- 좌 장 : 박천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li> <li>- 토론1 : 최순옥 서울시청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li> <li>- 토론2 : 장봉수 경기도청 소통협치국 공동체지원과장</li> <li>- 토론3 : 유영주 경기도교육청 꿈의학교 담당 장학사</li> <li>- 토론4 : 조윤정 경기도교육연구원 학교교육연구팀장</li> <li>- 토론5 : 정혜진 인천시 미추홀구 마을공동체 파랑새대표</li> </ul>
17:20~17:3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무리 및 정리</li> </ul>

##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관(科學館)을 생각 한다

- 11.8(목)~11.9(금) 제8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 개최 -

- 제8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이 11월 8일(목)부터 9일(금)까지 국립중앙과학관(관장:배태민)에서 열린다.
  - 올해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과학관’을 주제로 15개국 과학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4차 산업혁명시대 과학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한다.
- 과학관 혁신가로 잘 알려진 니나 사이몬(Nina Simon) 관장이 ‘모두의, 모두에 의한, 모두를 위한 과학관 창조’를 주제로, 두바이미래박물관의 개념설계자인 노아 래퍼드(Noah Raford) 박사가 ‘최신기술의 반영 미래과학관’을 주제로 기조 강연한다.
  - 또한, 과학관 분야 국내 최대 학술대회인 국제과학관심포지엄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대회 참가자에게 전문적 조언을 줄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로 심사위원단을 조직하였으며, 카피킬러를 이용한 사전 논문 중복성 검사를 실시하여 대회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국립중앙과학관 배태민 관장은 “지금까지 국제과학관심포지엄은 국내 과학관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동반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 학계·산업계 전반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과학관 대표 브랜드 행사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8회 국제과학관심포지엄에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공식 누리집 (<http://www.iss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SSM 2018**  
www.issm.or.kr

I-KOREA 4.0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과학관**  
Science Museum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제8회**  
**국제과학관**  
**심포지엄**  
International Symposium of  
Science Museums 2018

November 8~9, 2018  
Daejeon, Korea

 **국립중앙과학관**  
National Science Museum

www.science.go.kr  
국립중앙과학관

ISSM 2018 QR Code



11월 8일 (목요일) / Nov. 8th (Thu.)				
시간 / Time	사이언스홀	세미나실	창의나래관 나래홀	과학교실
	Science Hall	Science Hall Seminar Room	Science Alive Discovery Center	Science Education Hall
-09:30	참가등록 / Registration (Lobby, Science Hall)			
09:30-10:00		학술대회 구두발표 I Research Presentation I	학술대회 구두발표 II Research Presentation II	워크숍 Workshop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점심 / Lunch			
12:00-12:30	점심 / Lunch			
12:30-13:00	점심 / Lunch			
13:00-13:30	초청강연 I Invited Session I	학술대회 구두발표 III Research Presentation III	학술대회 구두발표 IV Research Presentation IV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30	초청강연 II Invited Session II	CEO포럼 CEO Forum	사례발표 Case Study	
15:30-16:00				
16:00-16:30				
16:30-17:00				
17:00-17:30	기조강연 및 대담 I Keynote Session I			
17:30-18:00	단체촬영 / Group Photo (Science Hall)			
18:00-18:20	단체촬영 / Group Photo (Science Hall)			
18:20-18:30	환영만찬 / Welcome Dinner			
18:30-19:00	환영만찬 / Welcome Dinner			
19:00-19:30	환영만찬 / Welcome Dinner			
11월 9일 (금요일) / Nov. 9th (Fri.)				
-09:30	참가등록 / Registration (Lobby, Science Hall)			
09:30-10:00		학술대회 구두발표 V Research Presentation V	학술대회 구두발표 VI Research Presentation VI	
10:00-10:30	초청강연 III Invited Session III			
10:30-11:00				
11:00-11:30				
11:30-12:00	점심 / Lunch			
12:00-12:30	점심 / Lunch			
12:30-13:00	점심 / Lunch			
13:00-13:30	초청강연 IV Invited Session IV			
13:30-14:00				
14:00-14:30		포럼 Forum		
14:30-15:00				
15:00-15:30				
15:30-16:00	기조강연 및 대담 II Keynote Session II			
16:00-16:30				
16:30-17:00	폐막식 및 시상식 Closing Ceremony			

## 문화누리카드와 함께 진로체험의 장을 열다

- 문체부·교육부, 소외계층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범사업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올해 11월부터 저소득층 학생, 농어촌 학생 등 소외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한 진로체험 활성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연간 7만 원 지급)

### < 문화누리카드 활용 진로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시범 운영 >

- ❖ 주제: 4차 산업혁명 진로직업창의체험 프로그램
- ❖ 대상: 충남 및 인근 지역 초·중학생  
(1순위: 문화누리카드 소지 학생, 2순위: 농어촌의 진로정보 취약 지역 학생)
- ❖ 기간/장소: 2018년 11월~2019년 1월 /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원
- ❖ 방법: 수준별로 반을 편성해서 체험형·강의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를 활용하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포용적 사회 통합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학생들의 흥미와 수요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및 문화예술 관련 분야와 연계한 진로체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충남, 세종 및 대전 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약 4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며, 1순위는 문화누리카드 소지 학생, 2순위는 진로정보 취약 지역인 농어촌 지역 학생으로 선발한다.

프로그램은 11월 10일(토)부터 12월 29일(토)까지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소에서 체험형·강의형으로 수준별로 반을 편성해 총 8회 운영한다. 진로와 창의체험 교육경험이 있는 유능한 강사진들이 사전에 진행한 학생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및 문화예술 관련 분야 내용\*을 제공한다.

\* '공주 석장리 구석기시대 탐험 엔트리 프로그래밍', '로봇 코딩으로 공주 관광지 탐험' 등 총 8종 프로그램 제공 예정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와 교육부는 저소득층 등 소외지역 학생들이 진로체험을 통해 희망의 사다리를 오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협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통합문화이용권이 진로체험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8 문화누리카드 활용 진로체험 활성화 프로그램 시범 운영 계획

□ **추진 목적**

- 저소득층, 농산어촌 및 구도심지역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 마을교육공동체 중심의 촘촘한 진로교육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기여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의 사용범위를 우수한 진로체험기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두 부처간 사업 시너지 제고

□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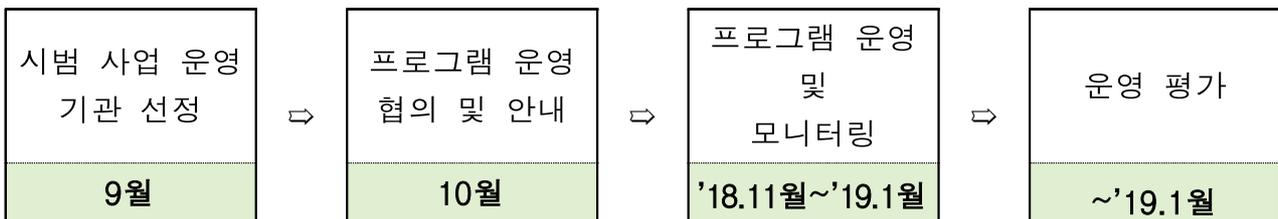
- 부처 간 문화누리카드에 관한 업무 협의 및 사전 조사 : '18. 6월
- 시범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확보: '18.9월
  - ※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중 소외계층 활성화 지원
-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진로체험 가능 여부 협의 : '18. 10.1.(월)

□ **추진 개요**

- (운영 기간) '18. 11월 ~ '19. 1월
- (운영 대상) 충남 및 인근 세종, 대전 문화누리카드 보유 초·중학생
- (주요 내용) 체험형 또는 강의형으로 구성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 (주최 / 주관) 교육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충남 미래창작 진로교육연구회
- (운영 장소) 다빈치창의융합연구소\*

\* 충남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행복교육지구 사업 참여, 공주대학교 산학연구원 소속

□ **추진 절차**



## □ 세부 추진 계획

- (주제) 4차 산업혁명 3미(의미·재미·흥미) 진로직업창의체험 프로그램
- (기간) 2018년 11월 ~ 2019년 1월
- (대상) 문화누리카드 활용 가능한 충남 및 인근 지역 초·중학생
- (세부 내용)
  - ① 진로창의체험 강사진 구성 및 수준 관리
    - 진로교육 및 창의체험 경험이 있는 교사, 마을교육활동가, 마을교사 등으로 구성
    - 강사 및 교원 대상 자율연수,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
  - ② 4차산업혁명 관련 분야 및 문화예술 연계 진로직업창의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내용) 학생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진로·직업군 다양한 직업세계의 이해, 4차산업분야와 문화예술 연계 프로그램 체험, 창업(직)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프로그램 유형) 체험형, 강의형으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 목록(안)

일시	진로직업창의체험 프로그램(예시)	비고
'18.11.10(토) 10:30~14:30	앱인벤터로 좋아하는 가수 뮤직비디오 앱 제작	
'18.11.17.(토) 10:30~14:30	공주 석장리 구석기시대 탐험 엔트리 프로그래밍	
'18.11.24.(토) 10:30~14:30	3D프린터 모델링 및 프린팅 과정으로 악기 만들기	
'18.12.1.(토) 10:30~14:30	로봇 코딩으로 공주 관광지 탐험	
'18.12.8.(토) 10:30~14:30	영상편집앱으로 과학창의축전 홍보영상 제작	
'18.12.15.(토) 10:30~14:30	드론으로 만나는 문화예술체험	
'18.12.22.(토) 10:30~14:30	마인크래프트로 세계문화유산 무령왕릉 재현	
'18.12.29.(토) 10:30~14:30	서천 국립생태원 견학	

○ **추진 방침**

- 프로그램 운영 내용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 진행
  - \* 교육과정과 연계하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수준별로 반을 편성·운영
- 교육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또는 대리인의 인솔 필요
-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에 프로그램 등록 및 활용
-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화누리카드로 결제 필요

□ **추진 일정**

-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 : ~ '18.11월초
- 프로그램 참여 학생 선정 후 개별 통보 : ~ '18.11월초
- 프로그램 운영 : '18.11월 ~ '19.1월
- 사업 결과 보고 : '19.1월

## "2019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 개시"

- 신청기간 : 2018. 11. 5. ~ 12. 4.(30일간) -

### 《 주 요 내 용 》

#### ◆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신청기간 및 대상

- 신청기간 : 2018. 11. 5. ~ 12. 4.(30일간)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토양환경 보전을 통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지원 중인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업의 2019년도 신청을 2018.11.5. 부터 12.4. 기간(30일간) 중에 받는다고 밝혔다.

○ 유기질비료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 귀농 등으로 이번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농협에서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로 등록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 토양개량제는 2017~2019년도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 2016년도에 일괄신청을 받았으므로, 신청내용에 변경이 없을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도 경작지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을 변경한 후 신청기간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 또한, 2016년도 신청시기를 놓쳐 신청하지 못했거나 2016년 신청 기간 이후 신규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경영체는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 토양개량제는 3년1주기 공급계획에 따라 2017~2019년까지 공급할 토양개량제 신청을 2016년 1~4월 시기에 이미 신청을 받았음

- 사업신청은 마을이장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읍·면·동사무소, 지역농협 등에 비치되어있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작성한 신청서는 메일 또는 팩스뿐만 아니라 마을이장 또는 작목반장에게 전달하여 사업신청을 할 수도 있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9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조속히 본인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기 등록된 농지정보를 현행화하고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 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 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 참고 1 2019년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요약

### < 유기질비료지원 >

◇ 사업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등록부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농업경영체

#### ◇ 지원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 지원조건

- 국고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원/20kg)	1,100		
부숙유기질비료(원/20kg)	1,100	1,000	800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 토양개량제지원 >

◇ 사업 대상자 : 유기질비료 지원과 동일

#### ◇ 지원 비료종류(3종류):

- 규산(규산질비료), 석회(석회고토, 패화석)

#### ◇ 지원조건

- 사업신청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무상지원

\* 규산 : 국비 60%, 지방비 40%, 석회 : 국비 80%, 지방비 20%

## 참고 2 2019년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안

### □ 사업의 목적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 □ 사업 대상자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사항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 □ 지원 비료종류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퇴비

###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1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1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 사업신청 기관 및 일정 : 농지소재지 읍·면·동(2018년 11월 5일~12월 4일)

###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 □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농업기술센터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사업의 목적**

-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지원내용**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사업 대상자**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사항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 지원조건**

- 규산 :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 석회(석회고토 및 패화석)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신청 기관 및 일정**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3년1주기 공급으로 '17~'19년 공급물량에 대해 '16년 1~4월에 일괄 신청)

- 변경 및 추가 신청기간 : 2019년 공급지역(2018년 11월 5일~12월 4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구청장),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생명정책관 농기자재정책팀(044-201-1892~3)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농산(유통)과, 농정과(특·광역시 : 농정과)
- 시·군·구 : 친환경농업과, 산업과·농정과(산업계)
- 농협중앙회 자재부 비료팀, 지역농협

##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27년까지 25종 복원

-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서식지의 조화로운 연결·복원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추진과제 도출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정책 방향을 개체 복원에서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 2018~2027(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이번 종합계획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대책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10년 단위 계획이다.
  - 이번 종합계획은 멸종위기종 개체 증식·보충 위주로 복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식지를 먼저 평가·분석하고 개선하는 등 멸종위기종 복원의 근원적인 측면을 고려한 대책을 담고 있다.
- 종합계획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처, 생명의 한반도’를 미래상(비전)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의 조화로운 연결·복원과 함께 2027년까지 25종의 복원을 목표로 삼았다.
  - 이를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등 멸종위기종 증식·복원에 앞서서 서식지를 사전 평가하고 적합한 서식여건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사·연구와 개선사업을 진행한다.
  - 또한, 멸종위기종 총 267종 중 현재 복원 중에 있는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64종을 ‘복원대상종’으로 선정하고 이 중 ‘우선 복원대상종’으로 25종을 선정하여 조사·연구·복원사업을 추진한다.

※ 복원대상종 64종

분류군	등급 및 생물명		종수 (우선복원종수)
	I급(25)	II급(39)	
포유류	반달가슴곰, 산양, 여우, 수달, 사향노루, 대륙사슴	무산쇠족제비	7 (5)
조류	저어새, 황새	따오기, 양비둘기, 검은머리갈매기	5 (4)
양서파충류	비바리뱀, 수원청개구리	남생이, 금개구리, 구렁이, 맹꽁이	6 (4)
어류	여울마자, 모래주사, 쯤수수치, 임실납자루, 흰수마자	큰줄납자루, 한강납줄개	7 (4)
곤충	비단벌레, 산골뚝나비, 장수하늘소	소똥구리, 꼬마잠자리, 닳두늬길앞잡이, 대모잠자리, 똥보주름메뚜기, 물방개, 여름어리표범나비, 왕은점표범나비, 은줄팔랑나비,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13 (1)
무척추동물	나팔고둥, 남방방개, 두드럭조개	참달팽이, 갯게,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기수갈고둥, 대추귀고둥, 붉은발말뚝게, 자색수지맨드라미, 흰발농게	11 (1)
육상식물	나도풍란, 만년콩, 털복주머니란, 한라솜다리	가는동자꽃, 서울개발나물, 신안새우난초, 한라송이풀, 각시수련, 나도승마, 노랑붓꽃, 물고사리, 정향풀, 제주고사리삼, 철보치마	15 (6)

※ 굵은글씨 : 우선 복원대상종(25종), 파란색 글씨 : 증식·복원 진행 중인 종

□ 이번 종합계획에 제시된 전략별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보전 강화

□ 산줄기·하천·습지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보전한다.

- 멸종위기종 서식지 조사·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서식지에 대해서는 생태축 복원계획 상의 생태축 연결·복원 사업이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유관계획 내에 사업화하여 반영함으로써 서식지 보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평가·분석하고 개선한다.

- 전국의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사전 평가하여 서식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연계하여 종별 기후변화 취약성을 평가하고

서식지 변동가능성에 따른 신규 서식지를 발굴·보전한다.

- 서식환경 조사를 통해 종별 위협요인을 분석해 외래종, 오염물질, 인간간섭, 울무 등을 제거하고 밀렵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 도로관리청 등이 생태통로를 설치하기 전에 환경부와 사전협의토록 개선하고, 야생동물 차길 사고 현황을 정보(DB)화하여 동물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생태통로, 유도방벽(펜스) 등 저감대책이 적용되도록 이끈다.

---

## 2.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체계적 복원

---

- 장수하늘소, 한라송이풀 등 64종을 복원대상종으로 선정해 기초 조사와 복원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 64종 중에서 복원 중인 반달가슴곰을 비롯해 금개구리, 나도풍란 등 복원이 시급하고 복원 가능성이 큰 25종을 ‘우선 복원 대상종’으로 정해 향후 10년 내 복원을 목표로 서식지 개선과 복원사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 올해 10월 31일 경북 영양에서 개원하는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 센터를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종 보전을 위한 인적 토대를 다질 계획이다.

---

## 3. 국민체감도 제고 및 협업 강화

---

- 마을 멸종위기종을 관·산·학 협력을 통해 복원토록 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주민의 생물보전 인식을 제고하고 마을 상징(브랜드)화를 도모한다.
- 남북 멸종위기종 보전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협력을 지원한다.

- 남북 비무장지대(DMZ) 생물상 조사, 호랑이 서식환경 보호, 대륙사슴·따오기·반달가슴곰 교류 등 한반도 위기종 보전 협력사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멸종위기종 보전 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 종 보전 정책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전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

#### 4. 멸종위기종 복원 지휘본부(컨트롤타워) 구축·운영

---

- 멸종위기종 보전정책 추진의 핵심기관인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신설하여 멸종위기종 복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개원에 따라 소속·산하기관의 기능을 조정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이 수행하던 멸종위기종 조사·연구 및 멸종위기종 정보(DB)관리 기능은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복원센터로 이관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20년까지 반달가슴곰 등 주요 종 복원사업을 현행과 같이 수행하고, 그 후에는 야생적응훈련, 야생방사, 관찰(모니터링) 등 서식지와 현장 관리 기능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 정종선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반달가슴곰 복원을 시작으로 환경부가 종 보전 정책을 추진한지 15년이 지나고 있다”면서,
  - “환경부는 이번 종합계획에 종 보전 정책을 서식지 보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고, 앞으로 10년간 서식지 개선과 종 복원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잘 이행해서 한반도의 많은 생물들이 비무장지대(DMZ)에서 만나고 백두대간 생태축을 따라 안전하게 남북을 서로 오가며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새로운 사회적기업 73개 인증 국내 사회적기업 총 2,089개로 늘어

- '18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를 실시하고 73개 기관을 신규로 인증하였다.

○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의 수는 2,089개가 된다.

□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 사업을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 금번 73개 인증 사회적기업 중 17개소(23.3%)가 정부의 창업지원에 참여

이는 그간 고용노동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문제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 성공모델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식회사 동구밭(서울시 성동구 소재)은 16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사회적기업이다.

- 사회성이 좋은 발달장애인이 좀 더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 사회성 향상, 장애 정도에 따른 맞춤형 근무환경 제공으로 '16년 장애인 첫 고용 후 퇴사자가 없으며, 월매출이 400만원 증가할 때 마다 발달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고 있다.

- 지난 '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고, '17년부터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하여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을 받고 있으며,

\* 창업 초기 (예비)사회적기업에 사업 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조기 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 부산, 전주, 경기, 대전 5개소 운영 중

- 꾸준한 제품개발을 통해 천연재료만을 사용한 1,000시간 자연 숙성 고급 천연비누를 만들고, 최근 상품성을 인정받아 미국·일본 등 5개국과 20만달러 규모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워커히, 엠바서더 등 외국계 호텔과 대기업에도 납품하고 있다.

-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강원도 춘천시 소재)은 '16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하여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으며, 지역 내 문화예술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문화·예술기획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의 기업명은 문화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이 맘껏 일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자는 뜻을 담고 있음

- 다양한 지역 축제와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 '16년 문화학교, '17년 도토리학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문화예술 교육 및 축제행사를 기획하여 진행

- 춘천마임축제 등 지역문화축제 기획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을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주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주식회사 맘이랜서(서울 송파구 소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지원을 사회적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회적기업이다.

- '맘이랜서스쿨' 운영 및 '맘잡고' 플랫폼을 구축하여 연간 480여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코딩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전문강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출강기회를 제공하는 등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 '13년 12월에 창업한 후 '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거쳐, '15년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후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과 재취업 연계 활동을 지속하여 왔으며, '17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송홍석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업가가 사회적기업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육성사업),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확충·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http://www.socialenterprise.or.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붙임. 주요 인증 사회적기업 개요

(주)동구밭

- 기관명 : (주)동구밭 (2014년 설립)
- 대표자, 연락처 : 노순호, 070-4282-9626 (www.donggubat.com)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덕정길 56, B1층 101호
- 주요 사업내용 : 천연비누 제작 및 판매,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 기업미션 :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증진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주요 활동
  - 대학 동아리에서 장애인과 텃밭을 가꾸는 경험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 1명을 사귄 때 마다 근속연수가 1년씩 늘어간다는 믿음 하에 현재의 동구밭을 창업
  - 16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여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상품성을 인정받아 호텔 및 대기업에 납품 계약 체결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텃밭을 일구는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성을 증대
  - \* 서울시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 등 총 22개 권역의 텃밭을 나눠 운영
  - '14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우수 창업팀 선정), '16년 서울특별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7년 성장지원센터 입주, '18년 사회적기업 인증



##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 기관명: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2016년 설립)
- 대표자, 연락처: 오석조, 070-8672-0155 (www.panculture.net)
- 소재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97, 3층
- 주요 사업내용: 문화기획자 교육 및 지역 문화예술 인력양성, 지역 축제 · 공연운영
- 기업미션: 지역청년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에 종사하는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취업하고 경력을 쌓는데 필요한 '판'을 깔아주는 역할
- 주요 활동
  - 문화인력 양성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기획자 실무교육을 실시
    - \* '16년 문화학교, '17년 도토리학교: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문화예술 교육 및 축제행사를 기획하여 진행
  - 지역형 축제모델 개발 및 축제행사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
    - \* 2016~2018문화축제: 2017년 들깨페스티벌 총괄기획, 2016~2018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연출, 2016~2018 춘천마임축제 제작 등
  - '18년 평창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상품관 운영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중
  - '16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우수 창업팀 선정), '16년 강원도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18년 사회적기업 인증



## 주식회사 맘이랜서

- 기관명 : 주식회사 맘이랜서 (2013년 설립)
- 대표자, 연락처 : 김현숙, 070-8822-4000 (www.momjobogo.com)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로 246, 1층 4호
- 주요 사업내용 : 경력단절여성 대상 코딩 강사양성과정 운영, 코딩 교육 서비스 플랫폼 구축
- 기업미션 :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 지원
- 주요 활동
  - '3CT코딩강사' 양성과정과 'PBL 코딩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으로 구성된 맘이랜서스쿨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간 약 480명의 경력단절여성을 코딩전문가로 양성하고 있으며,
    - \* 3CT(Creative Coding and Computation Thinking)강사 양성과정: 코딩교육을 위한 기본지식과 기초 교수법 교육
    - \* PBL(Project based Learning) 코딩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코딩교육 전문강사를 위한 교수학습 역량강화 교육
  - 코딩교육 서비스 플랫폼 '맘잡고'를 운영하여 코딩교육 전문가에 대한 재교육 및 일자리 매칭, 정보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맘이랜서스쿨) 코딩강사 양성과정 운영 → (맘이랜서네트워크) 재교육 및 일자리 매칭 등 경력개발 지원 → (맘잡고) 정보교류 등 서비스 제공
  - '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15년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18년 성장지원센터 입주, '18년 사회적기업 인증



##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 맞댄다.

-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대책 마련 -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6일(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최근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참석자들은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법·제도 및 매뉴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예정이다.
  - 가정폭력 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관의 가정폭력 사건 수사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가정폭력 사건 공동 대응 가이드라인'을 피해대상별,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제작·배포하고, ▲ 가정폭력 사건 조사 시 '재범위험성 조사표'\*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적극적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 '11년 긴급임시조치제도 신설에 따라 경찰의 판단자료로 활용

- 또한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기존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임시조치의 내용을 '특정장소'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현장상담과 사례 관리,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 여성가족부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2일부터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 위한 찾길사고 예방 캠페인

- 11~12월 동물 찾길사고 집중예보기간...안전운전·운전자 대응요령 홍보 강화 -

-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물 찾길사고가 빈발하는 지역의 고속도로 전광판(68개소)을 통하여 주의문구\*를 송출하고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통해 중앙선, 중부선, 당진대전선 등 고속도로 내 동물 찾길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145개소)\*\*을 알려준다.

\* “야생동물 사고 잦은 곳, 안전운전 하세요”

\*\* KT원내비 등 5개 업체에 반기별 동물찾길사고위험 위치정보 제공 중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동물 찾길사고가 많은 11월부터 12월까지를 찾길사고 집중예보 기간으로 정하고 녹색연합,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동물 찾길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개최한다.

\* 2일 기흥휴게소(부산방향) 10:00, 「동물 찾길사고 예방 캠페인」

- 이번 행사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동물 찾길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운전 수칙 등을 전파하고, 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과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캠페인에서는 동물 찾길 사고 줄이기에 동참하자는 의미의 “약속 지장 그림” 그리기, 동물 찾길사고 퀴즈, SNS 참여인증샷 올리기 등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 운전자가 동물 찾길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내비게이션, 도로안내 전광판 및 동물주의표지판 등으로 동물

찾길사고가 잦은 장소를 알리는 곳에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규정 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 도로에서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급하게 조작하지 말고 통과해야 하며, 순간적으로 동물의 시력장애를 유발하여 제자리에 서 있거나 오히려 차량으로 달려들게 할 수 있으므로 상향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부득이하게 동물과 충돌했을 때에는 비상점멸등을 켜 뒤 가능한 우측 갓길로 차를 이동하여 정차시키고, 안전지대에서 정부통합민원서비스(110,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로 신고하면 사고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추가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승자는 안전한 장소로 우선 대피시키고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 사고차량이 있음을 알린 후, 안전지대로 대피하여 수신호를 보내면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참고로, 국도와 지방도는 지난 5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시행한「동물 찾길 사고 조사 및 관리지침」에 따라 동물 찾길사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정보를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여 운전자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박연진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생태통로 설치 등 동물찾길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사업과 더불어 운전자들이 동물 찾길사고 발생 대응요령 등을 숙지하여 사람도 동물도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 데 동참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추진배경**

- 그간 정부의 동물 찾길 사고 방지대책에도 불구하고 동물 찾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야생동물 및 인명피해** 등에 대한 우려 지속
- 동물 찾길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11~12월) 동안 운전자 사고 예방법과 사고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온·오프라인 집중 홍보

□ **행사 개요**

- 일시 및 장소 : '18.11.2.(금), 10:00 ~ 15:00/ 기흥 휴게소(부산방향)
- 참가기관 : 국토교통부,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국립생태원, 녹색연합
- 주요내용 : 야생동물사고 예방, 대응요령 홍보 및 퍼포먼스\*

**<동물 찾길 사고 주요 대응요령>**

(안전 운전) 안전벨트 착용, 규정속도 준수, 내비게이션 등 안내 시 주의·감속  
 (동물 출현) 핸들 급조작·급브레이크·상향등 금지, 경적 울리며 서행  
 (사고 발생) 비상점멸등 작동, 우측갓길로 이동, 동물과 직접 접촉·이동 금지  
 (2차 사고예방) 동승자 우선 대피, 차량 안전조치 후 신고 등

\* 녹색연합에서 제안한 동물 찾길사고 저감을 위한 "약속 지장 그림", "퀴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인증샷 홍보" 등

□ **세부 추진계획**

- (동물 찾길사고 집중예보) 동물 찾길사고가 집중되는 기간(11~12월) 운전자 대상 예방 홍보 추진
-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및 영업소 등에서 야간운전자 대상으로 야생동물 찾길 사고 예방 및 단계별 대응요령 리플릿 배포(11.2 ~ 11.9)

- \* 동물사고 잦은 시간이 새벽 0시~오전 8시임을 감안 가급적 오후에 실시
- 동물사고가 잦은 곳 전방 도로전광판 68개소에서 주의문안 (“야생동물 사고 잦은 곳 안전운전하세요!”) 표출
- \* 표출기간 : '18. 11.2 ~ 12. 31 (새벽0시 ~ 8시) 집중 표출
- (교통정보앱 및 내비게이션 안내)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 앱(APP) 동물 찾길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주의 안내
  - 동물발견 또는 사고시 대처요령 등을 교통정보 App에서 안내
  - 중앙선, 중부선, 당진대전선 등 동물사고 잦은 위치 145개소 동물 주의 안내
  - \* KT원내비 등 5개 업체에 반기별 사고위험 위치정보 제공
- (언론 및 SNS 홍보) 동물 찾길 사고 예방방법 및 사고시 대처요령 등에 대해 주요 방송·신문사에 보도자료 배포
  - 트위터 등 SNS 활용 동물 찾길 사고 예방 동영상 등 홍보

## □ 향후 계획

- 동물 찾길 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추진(19년 상반기)

## 해수부,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확 줄인다

-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20년 1월 1일부터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1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제해사기구(IMO) 제7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의 결정('16.10)에 따른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을 국내법에 수용한 것으로서, 현재 1.0%에서 최대 3.5%인 경유(국제 항해용)와 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안 제42조제1항) 된다.

다만, 국내에서만 운항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관련 설비 교체 등 준비 기간 부여를 위해 개정 내용이 2021년 이후 도래하는 정기적 검사일 부터 적용되며, 경유(국내 항해용)는 현행대로 **0.05%\***가 적용된다.

\* 국내에서 경유를 사용하여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이미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0.05%**를 적용하고 있음(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임현택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다” 라며, “이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크게 줄어 대기질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령 제            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1.0퍼센트”를 “0.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병커 에이유(A중유)는 2.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병커 비유(B중유)는 3.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병커 시유(C중유)는 3.5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5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1.0퍼센트(무게 퍼센트)”를 “0.1퍼센트(무게 퍼센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내운항선박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을 받는 선박 중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도래하는 첫 정기적 검사기준일(「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7호에 따른 검사기준일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경유의 황함유량은 <u>1.0퍼센트</u> (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만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0.0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p> <p>2. 중유의 황함유량은 <u>벙커 에이유(A중유)</u>는 2.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u>벙커 비유(B중유)</u>는 3.0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u>벙커 시유(C중유)</u>는 3.5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4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이란 연료유에 포함된 황의 함유량이 <u>1.0퍼센트(무게 퍼센트)</u>인 것을 말한다.</p>	<p>제42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1. ----- <u>0.5퍼센트(무게 퍼센트)</u>-----            ----. -----            -----            -----            -----            ----.</p> <p>2. ----- <u>0.5퍼센트(무게 퍼센트)</u> -----.</p> <p>② -----            -----            -----            -----<u>0.1퍼센트(무게 퍼센트)</u>----            -----.</p>